소년체전 폐막…광주·전남 스포츠 꿈나무들 미래 봤다

광주 금 13·은 17·동 26개
수피아여중 농구 대회 2연패
김체량·최지웅 등 다관왕 배출

전남 금 26·은 19·동 31개
순천 팔마중 배구 6년만에 우승
바둑·축구 등 단체종목 선전

소년체전 농구에서 우승한 수피아여중. 〈광주시체육회 제공〉

소년체전 배구에서 우승한 순천 팔마중. 〈전남도체육회 제공〉

광주와 전남 선수들이 구기 종목에서 나란히 정상에 올라 전국 소년체전 대미를 장식했다.

광주 수피아여중은 농구에서 2연패를 달성했고 순천 팔마중은 6년만에 배구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수피아여중은 30일 울산과학기술대학교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전국소년체전 농구 결승전에서 동주여중(부산)을 70-56으로 대파하고 지난 대회에 이어 2연속 정상에 올랐다.

임연서(3년)는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광주 선수단은 금메달 13개, 은메달 17개, 동메달 26개 등 총 56개 메달을 획득했다.

근대 3종에서는 역대 최고 성적(금2, 은1, 동2)을 거뒀다. 광주·전남 분리 이후 소년체전에서 첫 금메달을 획득하기도 했다.

첫 금메달의 주인공인 최지웅(광주체중3)은 올해 두 차례 전국대회 개인전을 석권하며 기대감을 높였었다. 계주에서 이동규(3년), 이지훈(1년·이상 광주체중)과 함께 1위에 올라 2관왕을 차지, 근대3종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역도 여U16 +81kg급 김체량(광주체중 3년)은 광주선수단 첫 3관왕에 올랐고, U16 에어로빅 힙합에서도 2관왕을 배출했다.

바둑 여U13 단체전, 레슬링 남U16 그레꼬로만형 45kg급 박준령(금구중 3년), 수영 남U16 평영 200m 정건우(광주체중 3년)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남 선수단은 금메달 26개, 은메달 19개, 동메달 31개 등 모두 76개 메달을 일궈냈다.

지난 대회(금메달 15개, 은메달 19개, 동메달 23개)보다 금메달 11개, 동메달 8개를 더 따내는 성과를 올렸다.

순천 팔마중은 30일 울산제일고체육관에서 열린 배구U16 결승전에서 충북 제천중을 세트스코어 2-0으로 꺾고 제46회(2017년) 대회 이후 6년 만에 정상에 섰다.

전남체육은 엷은 선수층과 인프라 부족이라는 여건에도 단체종목인 바둑(남U16, 여U16), 축구(여U13, 여U16), 배구(남U13, 남U16)가 상위권에 입상하는 저력을 발휘했다.

바둑 남U16, 여U16(한국바둑중)과 배구 남U16(순천 팔마중)이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고, 스포츠클럽 소속 이형석(육상 남U16 1600m 혼성계주·영암중 3년·영암스포츠클럽)과 이다연(유도 여U16 57kg급·중동중 3년·순천유도스포츠클럽)이 각각 금메달 1개와 동메달 1개를 따냈다.

역도 남U16 신수용(고흥중 3년)이 3관왕에 오른데 이어 역도 남U16 김태양(완도중 2년), 수영 여U11 문승유(영암초 4년), 육상 여U16 최지우(구례여중 2년)가 각각 2관왕을 차지했다.

전남 체육중이 9개 종목에서 20개(금 7, 은5, 동8) 메달을 획득했고 구례여중이 육상에서 2개(금2), 광양백운중이 육상에서 4개(금2, 은2), 구례중이 씨름에서 2개(금 2), 완도중이 역도에서 5개(금2, 은2, 동1)메달을 따냈다.한국바둑중이 바둑에서 2개(금2), 영암초가 수영에서 4개(금2, 은1, 동1), 고흥중이 역도에서 3개(금3)를 일궈내는 등 고루 활약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체육회, 소년체전서 깜짝 생일파티 눈길

송진호 회장, 생일 맞은 선수들 방문 케이크·간식 전달 격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이 손준혁(광양중동중·탁구)군에게 생일케익을 선물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전남도체육회가 제52회 전국소년체전에 출전한 선수들에게 값진 추억을 선물했다.

전남도체육회(회장 송진호)는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울산에서 열린 소년체전에 출전한 선수들을 위해 깜짝 생일파티를 열었다.

이번 체전 기간 생일을 맞은 선수들은 조용기(무안북중·핸드볼), 정서빈(광양마동초·유도), 악지우(한국바둑중·바둑), 정승희(화순중·야구), 차태영(전남체육중·복싱), 서은찬(담양중)·김서영(목포여자중·이상 하키), 손준혁(광양중동중·탁구)군 등이다.

송진호 체육회장과 체육회 간부들은 이들이 머물고 있는 훈련장과 숙소를 방문해 생일케이크와 간식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송 회장은 직접 방문하지 못한 선수들에겐 전화를 걸어 격려하고 기프티콘을 선물했다.

뜻밖의 축하를 받은 선수들은 "소년체전에서 생일축하를 받아 매우 놀랐다. 세심하게 신경써주신 전남도체육회 임직원분들게 감사하다"며 "좋은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도체육회는 체전 때문에 스포츠 꿈나무들이 집에서 생일을 축하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 뜻깊은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 생일 파티를 준비했다. 전남을 대표하는 선수들의 사기와 용기를 북돋워 주기 위한 배려도 담겨 있다.

송진호 회장은 "전남을 대표해서 전국소년체전에 온 학생들이 머나먼 타지에서 생일을 맞았지만 축하를 받지 못하는게 안쓰러웠다"며 "조촐하지만 선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 초등 검도 선발팀 소년체전 3회 연속 우승

소년체전에서 3회 연속 우승한 광주 초등 검도 선발팀. 〈광주시검도회 제공〉

광주 초등검도팀이 전국 소년체전에서 3회 연속 정상을 차지했다.

광주 초등 검도 선발팀은 지난 27일 울산 중앙고등학교체육관에서 열린 검도 남U13 단체전 결승에서 전남 선발을 1-0으로 꺾고 우승했다.

광주 선발은 50회 전국체전에서부터 이번 대회까지 단체전에서 우승하는 등 전국 최강 실력을 선보였다.

허경도는 지난 51회 대회에서 이어 2연속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다. 그는 51회 대회부터 이번까지 8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했다.

광주는 이날 4명이 전남과 격돌해 모두 무승부를 기록하는 등 팽팽한 승부를 펼쳤다.

승부는 마지막 주장전에서 갈렸다.

광주의 주장 허경도(고실초· 고실검도관)가 전남 주장 하광호(순천동명초)에게 손목, 머리치기로 2점을 따내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단체전 우승을 이끈 광주 선수단은 남태윤(서석고 코치)가 감독을 맡고 허경도·허윤도(고실초·고실검도관), 권순헌(하백초·진성검도관), 정시현(오치초·오치검도관), 문율(화계초·임동력검도관), 임도윤(문흥중앙초·오치검도관)군으로 구성돼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한국 여자배구, 1일 튀르키예와 첫 경기

네이션스리그 명예 회복 나서

면모를 일신한 한국 여자배구가 국제 무대에서 명예 회복의 시동을 건다.

세사르 곤살레스 감독이 지휘하는 여자배구대표팀은 6월 1일 오전 2시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막을 올리는 2023 국제배구연맹(FIVB) 발리볼 네이션스리그(VNL) 1차전에서 개최국 튀르키예와 대결한다.

2024 파리올림픽 본선 진출에 사활을 건 한국 여자배구는 이번 VNL을 시작으로 9월에 열리는 아시아선수권대회, 파리올림픽 예선전, 아시안게임에 잇달아 출전해 국제 경쟁력을 끌어올린다.

이 중 아시안게임을 제외한 세 대회에는 세계랭킹을 좌우하는 랭킹 포인트가 걸려 우리나라는 23위로 떨어진 순위를 최대한 올려야 파리올림픽행을 바라볼 수 있다.

올해 파리올림픽 여자부 예선전은 9월 16~24일 중국, 일본, 폴란드에서 열리며, 우리나라는 폴란드, 이탈리아, 미국, 태국 등 8개 나라가 속한 C조 예선을 폴란드에서 치른다.

파리올림픽 본선에는 12개 나라가 참가하고, 개최국 프랑스가 출전권 1장을 확보한 가운데 올해 예선전에서 각 조 2위 이내 입상한 6개 나라가 출전권을 추가로 얻는다. 나머지 5장은 2024년 6월 17일 세계랭킹에 따라 배분한다.

예선전에서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하는 게 우리나라에 가장 좋은 시나리오이지만, 우리보다 랭킹이 높은 나라가 즐비해 사실상 어렵다. 결국 세계랭킹을 올리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를 위해 여자배구대표팀은 아시아선수권대회(9월 2~10일·태국)에 나선 뒤 폴란드로 날아가 올림픽 예선전을 뛰고 다시 항저우로 이동해 9월 28일~10월 7일 열리는 아시안게임까지 강행군을 이어간다.

대표팀이 VNL에서 내세운 목표는 최소 3승이다.

/연합뉴스

즐거운 문화산책

LOTTE CINEMA I 충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범죄도시3
2관	범죄도시3
3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ume 3, 타임 이즈 업2
4관	범죄도시3
5관	범죄도시3
6관	범죄도시3,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9관	분노의 질주: 라이드 오어 다이, 라이드 온
7관 씨네커플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ume 3, 스즈메의 문단속, 드림팰리스, 극장판 포켓몬스터DP : 아르세우스 초극의 시공으로
8관 씨네커플	인어공주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233

2023 빈 심포니 & 장한나 내한공연
일시 : 2023-06-11(일) 17: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문의 : 062-613-8235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Dear Heart」
일시 : 2023-06-17(토) 17: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문의 : 062-613-8235